



시각예술

이향지

예술인명	이향지 Lee Hyang Ji (李 香 枝)	
소 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적양배추를 소재로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고 작업하는 양배추 작가 이향지 입니다.	
주요교육이력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학사	
개 인 전 & 초 대 전	2020.12	AAA(어반브레이크 아트아시아 아트페어) 부스 개인전,서울
	2019.12	BIAF 부산국제아트페어 부스개인전.부산
	2019.3	움갤러리 초대개인전, 경기
	2018.4	갤러리엠 초대개인전, 서울
단 체 전	2020.10	안산국제 아트쇼 초대작가부스전,경기
	2020.06	5인 사각소리 드로잉전 .서울
	2019.06	조형아트서울 아트페어.서울
	2018.04	아트부산 아트페어 .부산
	2017~16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지역미술작가 초대전
소 장	2019	화성시립동지나래,병점,봉담,송산 도서관
	2015	화성시 문화재단
상 훈	2020	화성시 아트플랫폼 오픈스튜디오
	2019	화성시 라이프공모디자인 1위

<Life -If 이항지 작가노트>

Life 속에 if 가 있는 이유는 삶에는 언제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무엇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구상하`고 고민하게 된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쳐 가는 이미지와 사물들이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다시금 재현해보게 된다.

나는 많은 풍경과 다양한 소재를 그리다가 단면을 자른 여러 가지 소재에 매료 되었다.

그림이란,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바라본다는 것, 물체 그대로 보는 것 뿐 아니라 과거에 지나쳤던 것을 새롭게 보기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보기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작가들은 매일 일상으로 바라보는 사물들을 다른 사람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작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제각각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적양배추...처음의 그 시작은 거창한 이유도 이론으로 무장된 개념도 없었다.

그저 마음이 끌려서 였던 것 같다.

선이 주는 추상적 요소와 면이 주는 구상의 의미,

대상의 형태를 확정 짓는 외곽선도 아닌 어쩌면 뫼비우스의 띠처럼

이쪽과 저쪽의 공간의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이어져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엮어주는 소중한 끈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미로처럼 시공의 소통과 4차원의 공간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상상 속에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왠지 그 속에는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을 것 같고

삶에 대한 집착도 보이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에고이즘도 함께 있다.

익명성의 얼굴을 지니고 있지만 대립의 대상도 아니며 조화의 대상이다.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 영원한 것과 가변적인 것,

침묵하는 것과 행위 하는 것 같은 서로 다른 가치의 대비를 보여 줌으로써

구상 작업이 단순한 재현과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물을 작가 특유의 시각

과 표현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일 때 이는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쓸 것 보다 그릴 게 더 많은 것이 화가의 길이고 드러내면서도 감추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림이란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라고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느낀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절망에 빠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고뇌와 나태, 조급함과 절망의 반복 속에서
내 능력을 그림에 담아내고 내 그림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은 분명 힘들다.
그렇지만 늘 나를 겸손하게 하고 행복함과 내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한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내게 구원과도 같은 일이며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불행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고흐의 표현처럼 말이다.

적양배추 그대로의 모양으로 부터 재현하기 시작해

수년간 여전히 양배추 형상속에 빠져 있는 나는

생활 속에서 보여 지는 모든 사물에 양배추의 원형성과

여러 선과 형태들로 전환시키면 어떻게 바뀌어 지는가를 그려보는 즐거움이 작업을 배가시킨다.

적양배추가 원래 지니고 있는 색상인 보랏빛에 빠져

수많은 보라색과의 작업에만 몰두했지만

다양한 색상들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나의 시그니처 작업이 된 적양배추가 주는 신선한 느낌과 이미지들로

작업들은 앞으로 더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며 진화할 것이라도 믿는다.

그러므로 나에게 그림은 생활의 연속성이고 더 가까이에서 찾고

편안함에서 보고자 하며 작업은 모든 시름을 놓고 즐기는 중독이다.

그래서 난 앞으로도 열심히 그림을 그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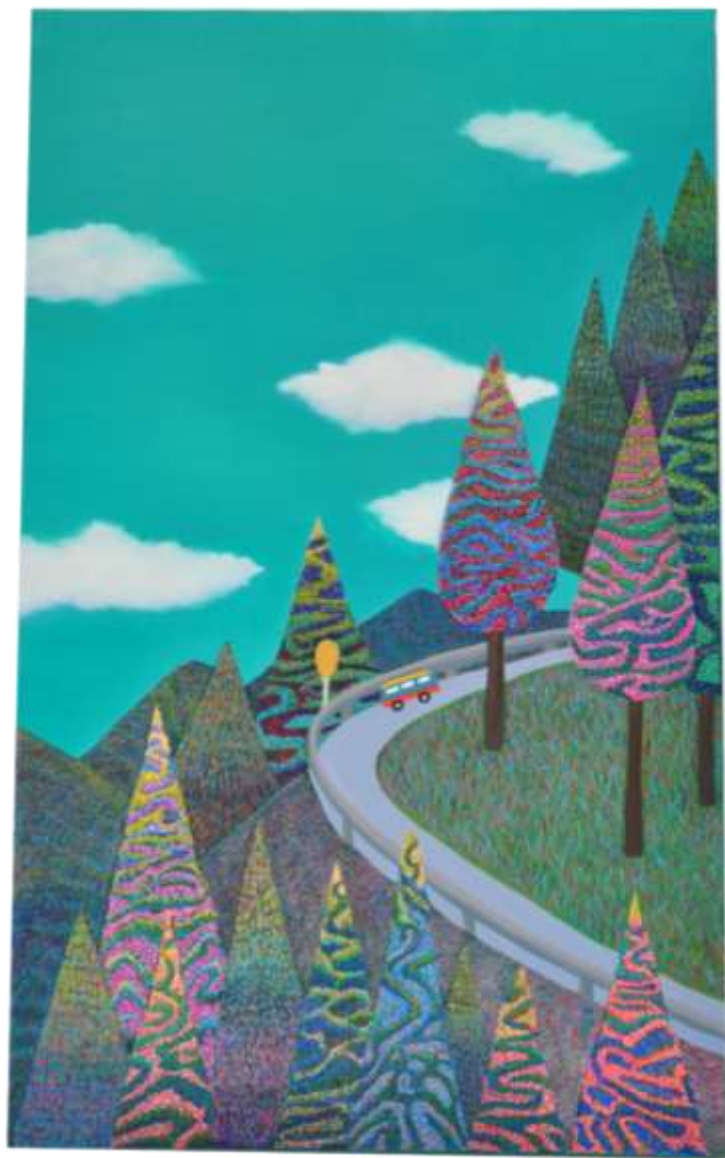
<혼자여도 괜찮은 하루> 72.7cm x 53cm Acrylic on Canvas 2020



<Skyblue> 65.1cm x 41cm Acrylic on Canvas 2020



<바람이 불어도> 65.1cm x 41cm Acrylic on Canvas 2020



<Going Home> 65.1cm x 41cm Acrylic on Canvas 2020



<따뜻한 시간 3> 31.8cm x31.8cm Acrylic on Canvas 2020



<달콤한 시간> 31.8cm x 31.8cm Acrylic on Canvas 2020



<따뜻한 시간 4> 31.8cm x 31.8cm Acrylic on Canvas 2020



<Bittersweet> 60.8cm x 32cm Acrylic on Canvas 2020



<Teatime 2> 30 x 30cm Acrylic on canva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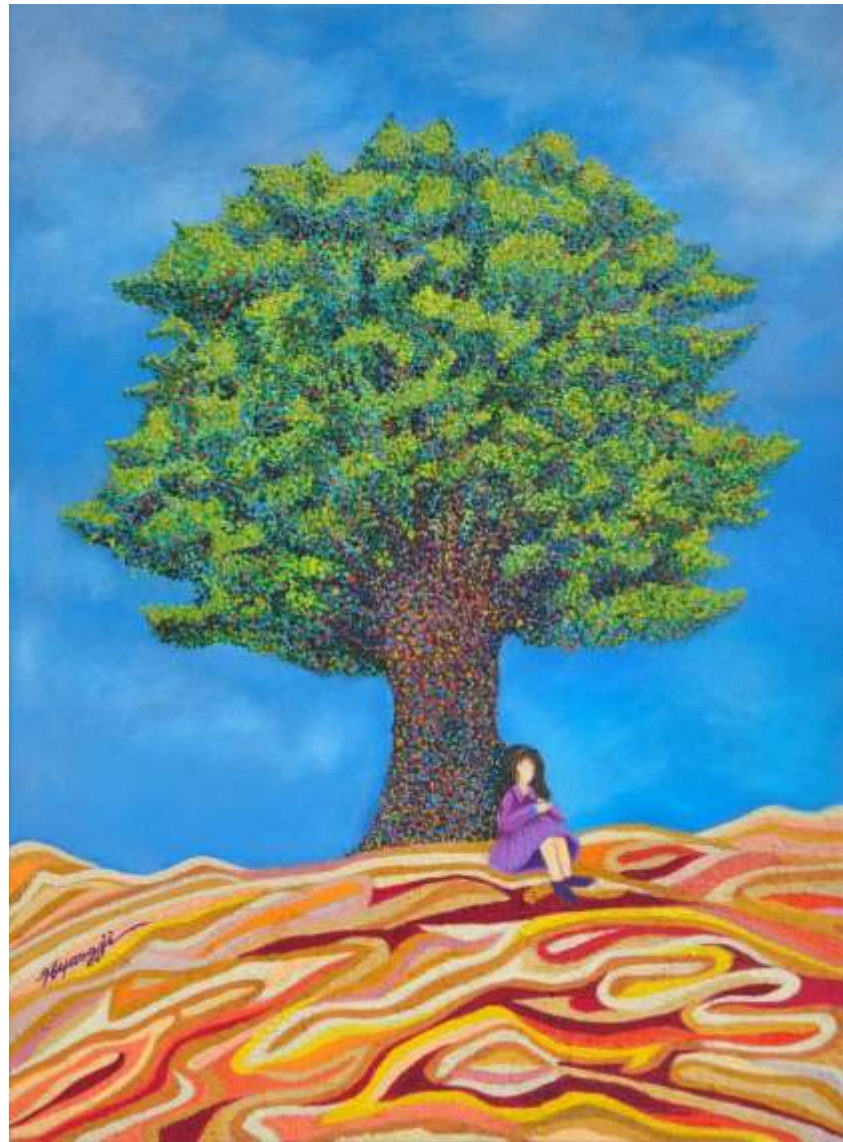
<Teatime 3> 30 x 30cm Acrylic on canvas 2019



<Teatime 4> 30 x 30cm Acrylic on canvas 2019



<행복해질 시간> 72.7 x 50.0cm Acrylic on canvas 2020



<Sunshine> 55.3 x 37.4cm Acrylic on canvas 2019



<Sunset> 55.3 x 37.4cm Acrylic on canvas 2019



<바라보기 3> 40.9 x 24.2cm Acrylic on canvas 2019



<바라보기 1> 40.9 x 27.3cm Acrylic on canvas 2019



<Surfing fish 1 & 2> 45.5x33.4cm Acrylic on canvas 2019



<다시 만난 세계> 130.3 x 75.3cm Acrylic on canvas 2019



<산책 갈까요> 116.7 x 80.3cm Oil & Acrylic on canvas 2019



<休(휴)> 116.7 x 80.3cm Acrylic on canvas 2018



<산책> 65.2 x 40.0cm Oil on canvas 2018



<소풍> 72.7 x 50.0cm Oil on canvas 2018



<초대 1> 100x40cm Acrylic on canvas 2018



<초대 2> 100 x 50cm Acrylic on canvas 2018



<Fire works 1.2.3.4.5> 45.5 x 27.5cm Acrylic on canvas 2018



<Under the Sea> (2ea) 97 X 30cm Oil on canvas 2017



<너는 지금 거기 나는 지금 여기 2> 112 X 112cm Oil on canvas
2016



<관계(Relation)> 6ea 200 x 65.0 Oil on canvas 2013



<미로(Maze)> 97 X 97cm Oil on canvas 2013

2020 AAA(어반브레이크 아트아시아 아트페어)



전시일정

2020.11.12-2020.11.15

전시장소

코엑스(COEX)(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전시소개

현대미술과 스트리트 컬처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아트페어로서, 표현의 새로운 공간인 '거리'에서 시작된 우리 시대의 예술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풀어냅니다.

<위)2019 조형아트페어, 아래)2018 갤러리엠초대전>



신항섭(미술평론가) 평론 中 발췌

“이항지의 풍경과 정물 - 현실적인 자연미를 통해 비정형의 미를 탐색”

창작이란 창의적인 사고의 산물이라고 했을 때 나만의 독특한 시각이야말로 독립적인 화가로서의 첩경이다. 하지만 수많은 화가들 가운데 이전에 없는 새로운 시각, 미적 관점을 제시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화가들 모두가 같은 꿈, 즉 개별적인 조형언어 및 형식적인 완성을 목표로 하는 까닭이다.

둥근 모양의 적양배추 단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추상적인 세계를 보여준다. 지적조작이나 상상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오글거리는 선과 면 그리고 색채로 현성된 아름다운 추상적인 이미지가 적양배추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이롭다. 이는 비일상적인 시각의 소산이자 명민한 예술가적인의 미의식 및 심미에 의해 밝혀지는, 마치 비밀의 창고를 열어젖히는 일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양배추의 단면은 숨겨진 자연미일 따름이다.

현실에서는 볼 수 없으나 엄연히 존재하는 물상의 내부에 숨겨진 미를 밝혀내는 일이기에 그렇다. 현실적인 감각으로는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본다는 것은 시각 및 의식의 확장을 의미한다. 어쩌면 조물주의 비의를 탐하고 엿보는 일일 수도 있다.

도무지 상상이나 예측으로는 가능치 않은 신묘한 선과 색채 그리고 면으로 조합되는 적양배추의 단면을 비현실적으로 확대했을 때 거기에서는 신선한 이미지의 신천지가 열린다. 예술가의 미의식 및 조형적인 상상력 그리고 미적 감각이 화합하여 찾아낸 숨겨진 자연미가 다름 아닌 오글오글한 모양의 적양배추의 옆 그 절단면이다.

적양배추 단면의 자연미에서 숨은그림찾기와 같은 이미지를 탐색하는데 이른다. 즉, 적양배추의 단면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물상의 이미지를 찾아내는 즐거움을 추가한다.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수 없는 이미지를 꼬집어낸다. 비구상적인 이미지와 조우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는 단순재현이라는 표현방식에 갇히지 않는 보다 자유로운 조형적인 상상을 유도하는 일이다.

관련 링크 목록 (관련 기사 & 영상)

순서	링크
1	미술 한국 응원 프로젝트 시즌 6 관련 기사 미술 한국 응원 프로젝트 시즌 6 관련 영상
2	오픈갤러리 작가 페이지
3	엘디프 L'Diff 선정 작가
4	어반브레이크 아트아시아 관련기사
5	갤러리 엠 초대 개인전
6	퍼블릭 갤러리 선정 작가